

박청수 교무님의 출판기념 축하의 말
2006-12-9 4:00PM 박정기집안

박청수 교무님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하늘 사람>과
<언론이 본 박청수 교무>라는 두 권의 책 출판을 선망하며 축하드립니다.

제가 교무님을 만난 것은 2001년 이른 봄 어느 모임에서
곁에 앉게 되어 이야기를 나눈 때였다고 기억하는데
교무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던지
우리 가까이에 이런 분도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까지 마음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교무님께서 3권의 책과 그밖에 많은 글들을 보내주셨는데
다 읽지 못한 채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로 교무님을 그린다면
박청수 교무님은 바로 <답지 못해 애가 끓는 병>,
중생이 앓기 때문에 나도 앓는다는,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의 병>을 평생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것을 모아 큰일을 해낸 교무님의 주변에는
교무님의 병을 함께 앓고 있는 나눔의 화신들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하면서
교무님의 손길을 필요로 했던 국내외 여러 곳의 중생들은 바로
당신의 삶을 살찌운 텃밭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데서
그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조안수

이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교무님의 50평생에 일궈낸 엄청난 활동은
종파에 구애받지 않고, 나라 안팎을 가리지 ^{없이} 사방팔방으로 다니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과 눈으로 끝없는 자비를 실천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한 사람이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는 것을 두고 법정스님은
두 손과 두 눈으로는 모자라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을 지니고
한량없고 끝없는 자비와 구제를 베풀었다는
<천수 천안> 관세음보살을 연상케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공감이 갑니다.

③

교무님의 발길, 손길이 닿은 인도나 캄보디아에 나도 수차례 다녀온 바 있고
그곳의 비참한 현상을 보고 가슴 아파한 점은 저도 다를 바 없는데
교무님과 내가 다른 것은 나는 자비의 실천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교무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며칠 전 만났을 때 교무님께서 금년으로 출가 50년을 맞았고
내년 1월에 정년퇴임을 하신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의 여생은 좀 한가롭게 고요하고 싱그러운 기운을
들숨날숨으로 호흡하며 자연의 일부처럼 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묻기를 그럼 모든 일은 접느냐고 했을 때
아직 할 일이 줄지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려할게*

아직 많은 일을 해야지요,

다른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의 삶은 수도자로서의 의무의 삶을 살았다면

앞으로의 삶은 새로운 한 마디의 삶을 살면서

교무님의 또 다른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후세들에게 귀감이 되어주는 일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한 평생을 100才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70세인 교무님!

다섯 해 먼저 태어난 제가

교무님께 100세를 넘기시면서 좋은 삶을 사시라고 소원한다면

저 자신이 오래 살고 싶다는 이야기로 들려서 쑥스럽습니다만

교무님 앞에는 아직 하실 일이 태산 같다는 것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만약 되고 싶은 것만*

5

저도 70이 넘으면서 이제는 하던 일을 정리해야지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고령자들이
아주 강건하게 삶의 현장에 임하고 있는 현실을 접하면서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이화대학교 창립 120주년 기념행사에서
유관순 열사보다 한 살 밀이며 독립운동을 함께 한,
아직도 건강한 104세의 동문을 만난 일과
세계 경영학 대가인 피터 드러커 교수의 94세의 미망인이
아직도 배낭을 메고 세계여행을 할 뿐만 아니라
연설도 거침없이 하는 모습을 접하면서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을 마치는 때까지 사람은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생의 후반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들 나름의 삶의 양식이 있을 것입니다.

교무님의 지난 50년간의 업적 위에 이어질 여생은

더욱 빛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교무님, 건강하시고 계속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계속 글을 많이 쓰셔서

후세들에게 좋은 가르침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의 책 출판을 다시금 축하

합니다.

2